채소류 가격 '껑충'… 원가 부담 줄인다

7월 농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8%대로 물가 상승 주도

농식품부, 수급상황실 가동… 품목별 가격·유통·작황 점검

비축·공급 물량 조절… 할당관세 품목 확대·신속 통관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체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가 배추를 고르고 있다. 배추가격은 1년 새 72.7% 상승하고 상추(63.8%), 잎채소(73.0%) 도 급등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물가는 8%대로 상승 폭이 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이른 추석으로 이번 달 농축산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격 변동이 큰 주요 농산물의 비축·출하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과 원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응해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과 장마로 채소류 생육에 영향을 주면서 농산물 물가는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 정모만 수입 돼지고기, 소고기 할당관세 영향으로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농식품부는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노지 밭작물 중 양파와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지만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 외식 수요가 늘고,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식품·외식 업계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가동하며 주요 농식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한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가격이 72.7%나 뛴 배추를 비롯해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진행 중이다. 배추는 6000t을 비축하고 있고, 무는 2000t 비축을 지난 6월 완료했다. 장마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협 물량 배추 4000t, 무 700t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올해 봄배추 작황 부진으로 수출 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배추 물량 확보에 나설 경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1600t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감자는 국내산 6000t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호주산 감자 700t을 수입해 이달 하순부터 국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양파와 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t, 마늘 6000t을 비축했다. 양파는 하루 100~150t, 마늘은 5t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양파·마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만654t 도입 물량 중 현재 1200t을 도입했다. 마늘은 9616t을 8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7월 가격이 오른 수입 소고기는 지난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t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5000t 통관을 완료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t 중에서 현재 약 5000t이 통관을 마쳤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은 3000t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할당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약 10% 인하하고 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불안에 대비해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다.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총 8만2500t을 적용, 7490t 통관을 완료했다.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t을 적용, 식품업계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7개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26만4000t으로 확대해 원료 매입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 520억원은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을 마쳤다.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기존 금리(2.0~2.5%p)에서 인하된 금리(1.5~2.0%p)를 적용받는다.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역시 상향 조정(10%p)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추경 390억원, 예비비 300억원을 확보해 연중 할인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에는 사업비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배추,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계획된 물량을 9월 말부터 수확하고,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자는 가을 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최대 310ha 확대키로 했다.

한시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정부지원을 국비부담비율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여름·가을·겨울 배추와 여름·가을 무, 겨울대파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t톤 수준(240ha)으로 기대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급상황실장)은 "현재의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협 김제시지부, 불우이웃에 쌀 10kg 300포 김제시에 기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는 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300포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박병철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장, 김태곤 농협 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제쌀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은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박병철 단장은 "쌀 소비 촉진과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앞으로도 김제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전북농협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NH해피하우스, 연탄나눔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은, 시원키트 100상자 기탁 선풍기 등 구성… 김제시에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일 독거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선풍기, 쿨매트, 쿨스카프로 구성된 시원키트 100상자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과 후원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원키트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북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전북은행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시원키트는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폭염 취약가구 100세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JB플랫폼서 체험하고 선물도 받자'

전북은행, 해시태그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금융에듀테인센터 JB플랫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방학을 맞아 국내 은행권 첫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활용한 JB 플랫폼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은 모든 체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JB플랫폼에서 체험 후 발급받은 JB 마스터 수료증을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본인 또는 가족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뒤 이달 31일까지 유지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 안내는 오는 9월 1일 JB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 20명을 추첨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 플랫폼 체험 후 발급받은 수료증을 현장에서 SNS 채널에 업로드하면 특별 제작된 여름 한정 굿즈를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이 JB플랫폼에서 더위도 식히고 건강한 경제관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추후 방학 시즌에 맞춘 이벤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B 플랫폼은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오후 두 회차로 진행되며 회차 당 15명(최대 30명)씩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나 예약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장수한우지방공사, 지난해 이어 공기업 경영평가 '다' 등급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1년 경영실적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2022년 경영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다' 등급을 받았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대응 비상경영을 통한 경비절감 등의 자구노력과 선도적인 ESG 경영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준수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번 성과는 출자기관인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간 협업 및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장수군은 한우구입사업 지원, TMR사료품질개선사업 지원, 장수한우 브랜드육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등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가능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을 펼쳤다.

최진구 사장은 "장수군의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경영에 동참해준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애써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기자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

엔알비·솔라인베스트 오엔엠코리아 등 전북대 입주기업 4곳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4개 기업이 2022년 호남권역 창업패키지사업(예비, 도약, 초기)에 선정됐다. 사진은 창업보육센터 전경.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4개 기업이 2022년 호남권역 창업패키지사업(예비, 도약, 초기)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인 전북대가 호남권 우수 창업기업을 선발해 단계별로 자금과 교육, 멘토링 등 성공 창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엔알비와 ㈜솔라인베스트, (유)오엔엠코리아, 그리고 예비창업자인 최은규씨가 각각 선정돼 사업화자금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됐다.

이번에 도약 패키지에 선정된 ㈜엔알비, ㈜솔라인베스트는 군산 강소특구내의 창업보육4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며, 각각 2019년도와 2018년도에 창업했다. ㈜엔알비는 모듈형 이동형 학교 건축물인 브릿지스쿨로 2021년도에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사업성을 인정받아 올해 118억 투자유치, kb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500억 승인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솔라인베스트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 2020년도에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4건을 취득했다. 2021년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사업에 선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인 (유)오엔엠코리아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뷰티 케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2021년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됐다. 국내 최초 개발한 실크크림을 제품화해 올해 NS홈쇼핑과 판매 계약을 체결, 업무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 치아미백 기구,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최은규씨는 안면인식 기반 3D 시각화 통합 출입관리 시스템(HVS)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됐다. 이 기술은 현재 상용화 단계로, 도시 안전관리, 공공시설 등 주요 산업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 및 사고, 제어에 초점을 맞춘 실시간 시각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장은 "글로벌화 된 경제 시스템에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 간 경쟁에서 초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대학 우수 입주기업들이 더욱 탄탄한 입지를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의 신성장을 이끌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 1,2센터, 완주 3센터, 군산 4센터 등으로 확장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